

# 80年代를 맞는 農民의 姿勢

## ——意識變化와 農機械 普及展望——

李 東 奎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崔 益 秀

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 I. 머리말
- II. 農民의 意識變化
- III. 農機械 普及展望
- IV. 맺는 말

보였으나 주소불명, 이시간 곳 미상 등의 이유로 반송된 사람이 26명이었다.

## 나. 작목별 통신원

주요채소와 축산에 대한 현지통신원을 주산지의 군농촌지도소에 추천의뢰 후, 추천된 농민에게 현지통신원 희망 여부를 물어, 희망자 중 선정된 자에게 통신원 위촉장과 設問書를 동시에 보냈다.

조사대상자와 응답자의 道別分布와 응답율은 <表 1>과 같다.

## I. 머리말

이번 조사는 70年代를 보내고 80年代를 맞이하여 農民이 營農에 임하는 基本的인 姿勢를 파악하여 80年代 農政의 方向設定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 1. 調査對象

## 가. 일반통신원

78年 현지통신원으로 위촉된 900명 중 離農者 7명을 제외한 893명을 調査對象으로 設問書를

## 2. 調査方法

우편조사

## 3. 調査期間

1979年 11月 20日~12月 20日 (1個月)

表 1 道別通信員數와 應答者數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통신원수	일반	99	51	62	114	103	166	158	112	28	893
	작목	59	47	55	46	18	63	83	67	4	442
	계	158	98	117	160	121	229	241	179	32	1,335
응답자수	108	67	86	116	81	149	146	122	15	892	
응답비율	(68.4)	(68.4)	(73.5)	(72.5)	(66.9)	(65.1)	(60.6)	(68.2)	(46.9)	(66.8)	

단위 : 인 (%)

表 2 應答者의 階層別 分布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만	0.5- 1.0ha	1.0- 2.0ha	2.0ha 이 상	국 중	중 중	고 중	대 중	20대	30대	40대	5.60대	
응답자수 (인)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892
구 성 비 (%)	16.3	40.3	31.4	12.1	21.1	36.4	37.1	5.4	12.8	24.8	47.8	14.7	100.0

#### 4. 調查事項

農村生活와 農業에 대하여 農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나, 과거 5年間 농촌생활의 변화, 현재 農業에 종사하는 데 대한 滿足如否, 앞으로 農村生活의 전망, 子女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할 것인가 등을 調查하였다.

또한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 농사는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가, 도시로 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農政施策을 알게 되는 經路, 79年 秋穀收買價는 만족스러운가 등을 물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번기 노동력부족의 해결책으로 농기계의 보급전망과 농기계에 대한 인식 정도도 調查했다.

#### 5. 分析方法

가. 79年 12月 20日까지 회수된 892명의 응답 결과를 分析對象으로 했다.

나. 응답자의 경지규모, 학력, 연령을 독립변수로 응답자의 意思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다. 1978年 農民의 사회관에 관한 調查結果와 비교분석 하였다(78年 調查結果 「農村經濟」 第2卷 第1號 참조).

라.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에 의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 6. 應答者의 階層別 構成

응답자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表2>

와 같다.

## II. 農民의 意識變化

### 1. 農村의 生活水準

農村의 生活水準은 5년전에 비하여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農村生活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46.0%, 약간 향상되었다가 43.4%로 農村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모두 89.4%였으며, 별차이가 없다가 4.5%, 오히려 못해졌다고 답한 사람이 6.1%였다.

78年의 調查結果와 비교하여 보면, 매우 향상되었다가 78年 57.3%보다 11.3%가 낮은 비율이며, 향상되었다는 비율은 78年 95.9%에서 89.4%로 6.5%가 낮아졌고, 못해졌다는 비율은 78年의 1.7% 보다 4.4%가 증가된 6.1%나 되었다<表 3>.

耕作規模別로 보면 耕作面積이 적을수록 향상되었다는 比率이 높아서 0.5ha 미만의 零細農은 91.0%였으며, 0.5~1.0ha의 小農이 89.5%, 1.0~2.0ha의 中農이 88.9%, 2ha 이상의 大農이 87.9%이었으며, 低下되었다는 應答者比率은 大農層에서 10.2%로 가장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향상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서 大卒이 91.6%로 가장 높았고, 高卒이 90.4%, 中卒이 89.6%, 國卒이 86.7%였다.

年齡別로는 20代가 향상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表 3 農村生活水準 變化에 대한 認識

조 사 년 도	단위 : 인 (%)						
	매우향상	약간향상	향상소계	동 일	저 하	계	무 응 답
78년	335 (5.73)	226 (38.6)	561 (95.9)	14 (2.4)	10 (1.7)	585 (100.0)	2
79년	410 (46.0)	387 (43.4)	797 (89.4)	40 (4.5)	55 (6.1)	892 (100.0)	—
비율증감	(△11.3)	(4.8)	(△6.5)	(2.1)	(4.4)	—	

무응답자 78년 2명 제외.

表 4 階層別 農村生活水準에 대한 反應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년 령 층 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 상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20 대	30 대	40 대	5,60대
매 우 향 상	68 (46.9)	170 (47.4)	116 (41.4)	56 (51.8)	83 (44.1)	150 (46.2)	155 (46.8)	22 (45.8)	70 (61.4)	88 (39.8)	188 (44.0)	64 (48.9)
약 간 향 상	64 (44.1)	151 (42.1)	133 (47.5)	39 (36.1)	80 (42.6)	141 (43.4)	144 (43.6)	22 (45.8)	41 (36.0)	109 (49.3)	183 (43.0)	54 (41.2)
향 상 계	132 (91.0)	321 (89.5)	249 (88.9)	95 (87.9)	163 (86.7)	291 (89.6)	299 (90.4)	44 (91.6)	111 (97.4)	197 (89.1)	371 (87.0)	118 (90.1)
동 일	6 (4.1)	16 (4.5)	16 (5.7)	2 (1.9)	11 (5.9)	16 (4.9)	12 (3.6)	1 (2.1)	2 (1.8)	10 (4.5)	22 (5.2)	6 (4.6)
저 하	7 (4.9)	22 (6.0)	15 (5.4)	11 (10.2)	14 (7.4)	18 (5.5)	20 (6.0)	3 (6.3)	1 (0.8)	14 (6.4)	33 (7.8)	7 (5.3)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높아 97.4%나 되었으며, 50~60대가 90.1%, 30대가 89.1%, 40대가 87.0%였다<表 4>.

2. 農村과 都市의 生活環境 差에 대한 展望

앞으로 農村과 都市 중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도시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가 27.2%, 도시가 약간 좋을 것이다가 59.7%, 農村에 비하여 도시가 좋을 것이다가 86.9%였으며, 農村과 都市가 비슷한 생활환경이 될 것이다가 8.6%,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가 4.5%였다.

78년같은 내용의 設問에 대한 應答結果와 비교하여 보면, 都市生活環境이 훨씬 좋을 것이다가 78년 7.7%에서 19.5%나 늘어난 27.2%가 되었으며, 도시가 약간 좋을 것이다가 9.0% 늘어나서 도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78년 調査에서 58.4%였으나, 本調査에서는 86.9%로 28.5%나 늘었다. 농촌이 살기 좋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78년 18.3%였으나 本調査에서는 4.5%에 불과하였다<表 5>.

耕作規模別로는 都市가 農村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0.5ha 미만의 零細農이 제일 높아 91.5%나 되었으며, 小農과 中農은 비슷하여 각각 86.2%와 87.3%이고, 2ha 이상 耕作하는 大農層이 81.4%로 제일 낮았다. 農村이 都市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답한 비율은 中農層이 5.8%, 大農 4.6%, 小農 4.2%, 零細農 2.8%에 불과했다.

學歷別로는 都市 優位가 大卒層은 93.6%나 되며, 國卒, 中卒, 高卒은 각각 86.9%, 86.5%, 86.1%로 큰 차이가 없었다. 農村優位에 답한 비율은 中卒이 가장 많아 5.7%였다.

年齡層別로는 都市優位에 답한 비율이 50~60代 90.4%, 40代 90.3%, 30代 87.7%, 20代 67.8%로 나이가 많을수록 도시가 농촌에 비하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代에서는 17.0%가 農村이 都市보다 살기 좋은

表 5 郡, 農間の 生活環境 比較

단위 : 인 (%)

조 사 년 도	심한도시우위	약간도시우위	도시우위소재	마찬가지	농촌우위	계	무 응 답
78년	45 (7.7)	296 (50.7)	341 (58.4)	136 (23.3)	107 (18.3)	584 (100.0)	3
79년	239 (27.2)	525 (59.7)	764 (86.9)	76 (8.6)	40 (4.5)	880 (100.0)	12
비 율 증 감	(19.5)	(9.0)	(28.5)	(△14.7)	(△13.8)	—	

무응답자 제외.

表 6 階層別 郡農間 生活環境差의 展望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20 대	30 대	40 대	5,60대
도시가 우위	129 (91.5)	306 (86.2)	242 (87.3)	87 (81.4)	159 (86.9)	276 (86.5)	285 (86.1)	44 (93.6)	76 (67.8)	193 (87.7)	382 (90.3)	113 (90.4)
비슷한 수준	8 (5.7)	34 (9.6)	19 (6.9)	15 (14.0)	18 (9.8)	25 (7.8)	32 (9.7)	1 (2.1)	17 (15.2)	22 (10.0)	29 (6.9)	8 (6.4)
농촌이 우위	4 (2.8)	15 (4.2)	16 (5.8)	5 (4.6)	6 (3.3)	18 (5.7)	14 (4.2)	2 (4.3)	19 (17.0)	5 (2.3)	12 (2.8)	4 (3.2)
계	141	354	277	107	183	319	331	47	112	220	423	125
무 응 답	4	4	3	1	5	6	—	1	2	1	3	6

무응답자 12명을 제외한 구성비임.

表 7 農業従事 満足度の 年度比較

단위 : 인 (%)

조 사 년 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계	무 응 답
78년	55 (9.5)	234 (40.4)	152 (26.2)	114 (19.7)	24 (4.2)	579 (100.0)	8
79년	32 (3.6)	240 (26.9)	214 (24.0)	331 (37.1)	75 (8.4)	892 (100.0)	
비 율 증 감	(△5.9)	(△13.5)	(△2.2)	(17.4)	(4.2)	—	

表 8 階層別 農業従事の 満足度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20 대	30 대	40 대	5,60대	
만족이다	35 (24.1)	115 (32.1)	80 (28.6)	42 (38.9)	54 (28.7)	112 (34.5)	95 (28.7)	11 (22.9)	52 (45.6)	54 (24.4)	121 (28.4)	45 (34.3)	272 (30.5)
그저그렇다	53 (36.6)	81 (22.6)	63 (22.5)	17 (15.7)	53 (28.2)	81 (24.9)	69 (20.8)	11 (23.0)	23 (20.2)	51 (23.1)	107 (25.1)	33 (25.3)	214 (24.0)
불만이다	57 (39.3)	163 (45.4)	137 (48.9)	49 (45.4)	81 (43.1)	132 (40.6)	167 (50.5)	26 (54.2)	39 (34.2)	116 (52.5)	198 (46.5)	53 (40.4)	406 (45.5)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892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表 6).

### 3. 農業従事の 満足度

農業에 종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農業에 종사하는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應答者 비율은 3.6%, 대체로 만족한다

는 비율은 26.9%로 30.5%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24.0%, 약간 불만이다가 37.1%, 매우 불만이다가 8.4%였다.

이 結果는 78年 調査結果에 비하여 農業従事に 満足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나 줄었으며, 不 滿에 答한 비율은 78년에는 23.9%에 불과하였 으나, 이번 調査에서는 45.5%였다(表 7).

表 9 定着과 離農意思의 年度比較

		단위 : 인 (%)			
조 사 년 도	정 착	이 농 후 귀 농	이 농	계	무 응 답
78년	403(70.6)	67(11.7)	101(17.7)	571(100.0)	16
79년	572(66.3)	103(11.9)	188(21.8)	863(100.0)	29
비 율 증 감	(△4.3)	(0.2)	(4.1)	—	

表 10 定着 및 離農意思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 상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20 대	30 대	40 대	5,60대	
정 착	88 (62.9)	219 (63.5)	183 (67.0)	82 (78.1)	128 (71.1)	205 (64.5)	208 (65.4)	31 (66.0)	79 (71.8)	128 (59.0)	263 (64.3)	102 (80.3)	572 (66.3)
이 주 후 귀 농	29 (20.7)	44 (12.8)	25 (9.2)	5 (4.8)	16 (8.9)	35 (11.0)	43 (13.5)	9 (19.1)	15 (13.6)	37 (17.1)	46 (11.2)	5 (3.9)	103 (11.9)
이 농	23 (16.4)	82 (23.8)	65 (23.8)	18 (17.1)	36 (20.0)	78 (24.5)	67 (21.1)	7 (14.9)	16 (14.6)	52 (23.9)	100 (24.5)	20 (15.7)	188 (21.8)
계	140	345	273	105	180	318	318	47	110	217	409	127	863
무 응 답	5	14	7	3	8	7	13	1	4	4	17	4	29

무응답자 29명을 제외한 구성비임

耕作規模別로 農業從事가 만족하다고 응답한 比率을 보면 2.0ha 이상의 大農이 38.9%로 가장 높고, 小農이 32.1%, 中農이 38.6%이며, 0.5ha 미만의 零細農이 24.1%로 가장 낮았다.

農業에 종사하는 것이 그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小農이 가장 많아 36.6%, 大農이 가장 적어 15.7%이었다. 農業從事가 不滿이라는 中農이 48.9%로 가장 많았다.

學歷別로는, 만족하다가 中卒이 많아 34.5%, 大卒이 22.9%이었다. 반면에 불만이라는 大卒이 많아 54.2%나 되었다.

年齡別로는 20代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45.6%이고 불만이 34.2% 이며, 30代가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 24.4%이고, 불만이 52.5%였다<表 8>.

#### 4. 定着과 離農意思

離農意思를 묻는 設問의 應答結果로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가 66.3%, 都市로 이농하고 싶다가 21.8%, 도시에 나가 돈을 벌면 다시 돌아

오겠다는 11.9%였다.

78年 같은 내용의 設問에 대한 應答結果와 비교하여 보면 農村定着을 바라는 應答자 비율은 78年 70.6%에서 4.3%가 줄어든 66.3%이며, 이농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78年 17.7%에서 4.1%가 늘어난 21.8%였다<表 9>.

耕作規模別로 農村에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은 大農이 78.1%, 中農이 67.0%, 小農이 63.5%, 零細農이 62.9%이었다. 都市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農村에 돌아오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零細農이 가장 높아 20.7%였고, 小農 12.8%, 中農 9.2%, 大農 4.8%의 순이었다.

學歷別로는 國卒의 農村定着 希望比率이 가장 높아 71.1%였으며, 大卒 66.0%, 高卒 65.4%, 中卒 64.5%의 순이었다. 歸農을 바라는 비율은 大卒이 19.1%, 高卒 13.5%, 中卒 11.0%, 國卒 8.9%였다.

年齡別로는 50~60代가 定着을 바라는 비율이 80.3%나 되며, 20代가 71.8%, 40代가 64.3%, 30代가 59.0%였다. 國卒層이나 50~60代가 農村

에서 계속 生活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떠날 수 있는 條件이 되지 못하여 農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離農後 歸農希望比率 또한 이런 계층이 가장 낮은 것도, 떠날 수는 없지만 떠나기만 하면 다시 農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表 10>.

5. 農業從事の 満足度와 定着意思

農業從事の 満足 여부와 定着 및 離農意思를 비교하여 보면 <表 11>과 같다.

表 11 農業從事 満足度의 定着意思

		단위 : 인 (%)			
구	분	만 족	그저그렇다	불 만	계
정	작	233 (86.3)	134 (66.0)	205 (52.6)	572 (66.3)
이	주 후	22 (8.2)	24 (11.8)	57 (14.6)	103 (11.9)
이	농	15 (5.5)	45 (22.2)	128 (32.8)	188 (21.8)
	계	270 (100.0)	203 (100.0)	390 (100.0)	863 (100.0)
무	응	2	11	16	29

무응답자 29명 제외.

農業從事に 満足한다고 답한 270명 가운데 86.3%가 계속 農村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5.5%는 농업종사에 만족하지만 離農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농업종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390명 중 52.6%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불만이지만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都市에 나가도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농할 형편이 못되어 農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된다.

6. 農業 이외의 希望職業과 可能職業

農業에 從事하지 않고 都市로 간다고 할 때 바

라는 職業과 가능한 職業을 물은 結果이다.

農業 이외에는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다가 32.3%이며, 農業 이외에는 종사할 수 있는分野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3.4%나 되었다.

希望職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은 상업이며, 크게는 農산물 판매장이나 슈퍼 마켓의 경영에서 작게는 行商까지로 다양하게 응답하여 34.1%나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이 공장직공, 목수, 벽돌공 등 건축분야의 기능공, 자동차 정비 등의 기술자로 13.8%였으며, 사무직으로 취업희망이 12.9%, 개인기업체, 여관, 다방 등 접객업소 희망이 4.9%이고, 막노동, 수위, 청소부 등의 勞動이 2.0%였다.

希望職業과 可能職業을 비교해 보면 資本이 필요한 상업이 34.1%에서 26.8%로, 개인사업이 4.9%에서 3.6%로 줄었으며, 기술자는 3.6%가 줄어든 10.2%, 사무원은 10.3%인데 반하여 勞動일밖에 할 수 없다는 3.7%가 늘은 5.7%였다.

都市에서 취업할 수 있는 機會가 얼마든지 주어져도 실제로 離農者가 취업할 수 있는 能力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生産分野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評價를 한 比率는 사무원과 기술자, 노동을 합하여도 26.2%에 불과하였다<表 12>.

7. 子女에게 農業勸獎 意思

子女에게 農業을 勸獎할 것인가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農業 이외의 職業을 택하도록 권장하겠다고 30.7%이고, 子女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決定하도록 하겠다고 65.5%, 農業을 권장하고 農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3.8%에 불과하였다.

같은 內容의 78年 應答結果와 비교하여 보면

表 12 農業外的 希望職業과 可能職業

단위 : 인 (%)

	상업	사무원	기술자	사업	노동	없음	계
희망 직업	304(34.1)	115(12.9)	123(13.8)	44(4.9)	18(2.0)	288(32.3)	892(100.0)
가능 직업	239(26.8)	92(10.3)	91(10.2)	32(3.6)	51(5.7)	387(43.4)	892(100.0)

表 13 子女에게 農業勸獎意思의 年度比較

단위 : 인 (%)

조사년도	다른직업권장	자녀의사대로	전적으로권장	계	무응답
78년	123(21.3)	418(72.4)	36(6.3)	577	10
79년	271(30.7)	578(65.5)	33(3.8)	882	10
비율증감	9.4	△6.9	△2.5	—	—

表 14 階層別 子女에게 農業勸獎意思

단위 : 인 (%)

구분	경작규모별				학력별				년령층별			
	0.5ha 미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졸	중졸	고졸	대졸	20대	30대	40대	5,60대
다른 직업 권장	35 (24.5)	122 (34.4)	90 (32.4)	24 (22.6)	57 (31.0)	99 (30.7)	101 (31.3)	14 (29.2)	16 (14.8)	62 (28.3)	153 (36.1)	40 (30.5)
자녀 의사 대로	103 (72.0)	221 (62.3)	178 (64.0)	76 (71.7)	122 (66.3)	213 (65.9)	211 (65.3)	32 (66.7)	83 (76.9)	155 (70.8)	257 (60.6)	83 (63.4)
전적으로 권장	5 (3.5)	12 (3.3)	10 (3.6)	6 (5.7)	5 (2.7)	11 (3.4)	15 (4.6)	2 (4.2)	9 (8.3)	2 (0.9)	14 (3.3)	8 (6.1)
계	143	355	278	106	184	323	327	48	108	219	424	131
무응답	2	4	2	2	4	2	4	—	6	2	2	—

表 15 耕作可能面積

단위 : 인 (%)

	1ha 미만	1—2ha	2—3ha	3—5ha	5ha 이상	계
응답자 수	128	372	184	116	92	892
구성비	14.4	41.7	20.6	13.0	10.3	100.0

다른 職業을 권하겠다가 78年 21.3%보다 9.4%가 增加했으며, 農業을 권장하겠다가 78年 6.3%보다 2.5%가 줄은 3.8%였다. 子女의 意思에 따르겠다는 78年 72.4%보다 6.9%가 減少되었다<表 13>.

耕作規模別로는 農業을 권장하겠다고 答한 비율이 大農 5.7%, 中農 3.6%, 零細農 3.5%, 小農 3.3%였다. 다른 職業을 택하도록 권장하겠다는 小農이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學歷別로는 農業을 勸獎하겠다는 비율이 高卒 4.6%, 大卒 4.2%, 中卒 3.4%, 國卒 2.7%였다. 年齡別로는 다른 職業을 권하겠다는 비율이

40代가 36.1%, 50~60代 30.5%, 30代 28.3%, 20代 14.8%의 순이었다. 농업을 전적으로 勸獎하겠다는 비율은 20代가 8.3%, 50~60代가 6.1%, 40代가 3.3%이며, 30代는 0.9%에 불과하였다<表 14>.

### 8. 耕作可能面積

耕作可能面積을 1~2ha라고 答한 사람이 41.7%, 2~3ha가 20.6%, 1ha 미만이 14.4%로서 3ha 미만의 耕地가 耕作可能하다고 答한 사람은 모두 76.7%였다<表 15>.

현재의 營農條件으로도 現行 農地所有上限線

表 16 階層別 耕作可能面積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구 모				학 력 별				연 령 층 별			
	0.5ha 미 만	0.5— 1.0ha	1.0— 2.0ha	2ha 이 상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20 대	30 대	40 대	5,60대
1ha 미만	61 (42.1)	55 (15.3)	10 (3.6)	2 (1.9)	31 (16.5)	51 (15.7)	38 (7.5)	8 (16.6)	13 (11.4)	26 (11.8)	65 (15.2)	24 (18.3)
1—2ha	48 (33.1)	190 (52.9)	123 (43.9)	11 (10.2)	93 (49.5)	140 (43.1)	130 (39.3)	9 (18.8)	33 (29.0)	93 (42.1)	187 (43.9)	59 (45.0)
2—3ha	18 (12.4)	67 (18.7)	76 (27.1)	23 (21.3)	38 (20.2)	69 (21.2)	67 (20.2)	10 (20.8)	26 (22.8)	50 (22.6)	88 (20.7)	20 (15.3)
3ha 이상	18 (12.4)	47 (13.1)	71 (25.4)	72 (66.6)	26 (13.8)	65 (20.0)	96 (29.0)	21 (43.8)	42 (36.8)	52 (23.5)	86 (20.2)	28 (21.4)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인 3ha 이상 耕作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23.3%였으며, 5ha 이상 경작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도 10.3%나 되었다.

耕作規模別로는 現耕作規模가 클수록 耕作可能規模도 크게 답한 사람이 많다.

農地上限線인 3ha 이상 耕作이 可能하다고 답한 사람은 0.5ha 미만의 零細農과 0.5~1ha의 小農은 각각 12.4%와 13.1%에 지나지 않았으나, 中農 25.4%이며, 2ha 이상 耕作하고 있는 大農은 66.6%로 耕作規模가 커질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表 16).

現耕作面積이 2ha 이상인 大農層이 耕作可能面積을 2ha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12.1%나 되었다. 이것은 이들이 실제로 耕作可能面積 보다 많은 農地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3ha 이상 耕作可能面積에 답한 사람의 비율은 높아 대졸이 43.8%, 고졸 29.0%, 중졸 20.0%, 국졸 13.8% 였고, 年齡別로는 20代가 36.9%, 30代 23.5%, 50~60代 21.4%, 40代 20.2%의 比率이었다(表 16).

### 9. 農政施策과 媒體

全體 應答者의 81.5%가 當局의 農政施策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가운데 36.2%가 신문, 26.4%가 텔레비전

을, 18.9%가 라디오를 통해서라고 답하였다.

面職員, 農村指導所 職員, 農協職員 등의 一線公職者를 통하여 알게 된다가 16.5%이며, 里長이나 部落內 指導者, 이웃 사람, 部落內 放送 등을 통하여가 2.0%였다.

耕作規模別로는 0.5ha 미만의 零細農은 매스컴을 통하여가 83.5%로 제일 높고, 라디오가 22.8%, 신문은 34.5%였다.

一線公務員을 통하여는 中農이 18.6%, 小農 15.9%, 大農 15.7%, 零細農 14.5%였다.

學歷別로 신문에 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大卒이 52.1%나 되며, 高卒 41.1%, 中卒 32.6%, 國卒 29.8%의 순이었으며, 里長이나 部落民에 답한 사람은 國卒 3.2%, 中卒 2.5%, 高卒 0.9%였고, 大卒은 한 명도 없었다.

年齡이 많을수록 里長이나 部落民을 통하여 알게 되는 비율이 높아 50~60代 3.1%, 40代 2.6%, 30代 1.4%이며, 20代는 한 명도 없었다.

매스컴을 통하여는 젊은층일수록 應答比率이 높아 20代 85.1%, 30代 84.6, 40代 80.3%, 50~60代 47.1%의 순이었다(表 17).

### 10. 秋穀收買價에 대한 滿足度

政府에서 收買하는 벼값에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23.9%, 그저 그렇다가 28.8%, 불만이



表 17 農政施策의 媒體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모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20 대	30 대	40 대	5,60대	
신 문	50 (34.5)	130 (36.2)	100 (35.7)	43 (39.8)	56 (29.8)	106 (32.6)	136 (41.1)	25 (52.1)	40 (35.1)	94 (42.5)	147 (34.5)	42 (32.0)	323 (36.2)
테 레 비 전	38 (26.2)	95 (26.5)	75 (26.8)	27 (25.0)	48 (25.5)	81 (24.9)	93 (28.1)	13 (27.1)	33 (28.9)	62 (28.1)	109 (25.6)	31 (23.7)	235 (26.4)
라 디 오	33 (22.8)	70 (19.5)	47 (16.8)	19 (17.6)	43 (22.9)	62 (19.1)	55 (16.6)	9 (18.7)	24 (21.1)	31 (14.0)	86 (20.2)	28 (21.4)	169 (18.9)
메 스폴 계	121 (83.5)	295 (82.2)	222 (79.3)	89 (82.4)	147 (78.2)	249 (76.6)	284 (85.8)	47 (97.9)	97 (85.1)	187 (84.6)	342 (80.3)	101 (77.1)	727 (81.5)
일 선 공 무 원	21 (14.5)	57 (15.9)	52 (18.6)	17 (15.7)	35 (18.6)	68 (20.9)	44 (13.3)	1 (2.1)	17 (14.9)	31 (14.0)	73 (17.1)	26 (19.8)	147 (16.5)
리 장 및 부 라 민	3 (2.1)	7 (1.9)	6 (2.1)	2 (1.9)	6 (3.2)	8 (2.5)	3 (0.9)	—	—	3 (1.4)	11 (2.6)	4 (3.1)	18 (2.0)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892

表 18 秋 穀 收 買 價 滿 足 度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모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20 대	30 대	40 대	5,60대	
만족스럽다	32 (23.4)	95 (26.9)	58 (21.0)	21 (21.9)	37 (20.6)	86 (27.3)	78 (24.5)	5 (10.4)	27 (25.7)	43 (20.2)	110 (26.3)	26 (20.6)	206 (23.9)
그저그렇다	54 (39.4)	101 (28.6)	65 (23.6)	28 (29.2)	57 (31.7)	88 (27.9)	89 (27.9)	14 (29.2)	29 (27.6)	67 (31.5)	113 (27.0)	39 (31.0)	248 (28.8)
불만이다	51 (37.2)	157 (44.8)	153 (55.4)	47 (48.9)	86 (47.7)	141 (44.8)	152 (47.6)	29 (60.4)	49 (46.7)	103 (48.3)	195 (46.7)	61 (48.4)	408 (47.3)
계	137	353	276	96	180	315	319	48	105	213	418	126	862
무응답	8	6	4	12	8	10	12	—	9	8	8	5	30

다가 47.3%였다.

불만이라고 답한 사람을 耕作規模別로 보면 中農이 55.4%, 大農 48.9%, 小農 44.8%, 零細農 37.2%로 오히려 耕作規模가 적은 사람이 불만스럽다는 비율이 낮았다. 단순히 耕作規模만 가지고 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는 찾을 수 없으나, 零細農이나 小農은 農家總所得 中 米穀部分의 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것이며 食糧의 自給이 곤란하여 購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學歷別로 불만에 답한 비율은 大卒이 가장 높아 60.4%이며, 國卒 47.7%, 高卒 47.6%, 中卒 44.8%였다. 大卒層에서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10.4%밖에 되지 않았다.

年齡層別로는 불만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20대

와 40대가 46.7%로 같고, 30대와 50~60대가 48.3%와 48.4%였다(表 18).

### Ⅲ. 農機械 普及 展望

農繁期의 노동력 형편이 78년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農機械中 농번기의 노동피크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앙기와 수확기(콤바인, 바인더)를 중심으로 普及上의 阻害要因과 購入意思를 調査하였다.

#### 1. 農繁期의 勞動力 形편

79年の 移秧期와 收穫期에 일손 구하기는 78년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는 設問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78년에 비하여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

表 19 農繁期の 勞動力 形편 (78년對比)

단위 : 인 (%)

구 분	모 내 기 철					벼 베 기 철				
	0.5ha미만	0.5—1.0ha	1.0—2.0ha	2.0ha이상	계	0.5ha미만	0.5—1.0ha	1.0—2.0ha	2.0ha이상	계
좋아졌다	9(6.2)	36(10.0)	18(6.4)	18(16.7)	81(9.1)	14(9.7)	50(13.9)	23(8.2)	21(19.5)	108(12.0)
비슷하다	40(27.6)	100(27.9)	58(20.7)	24(22.2)	222(24.9)	41(28.3)	91(25.4)	65(23.2)	24(22.2)	221(24.8)
나빠졌다	87(60.0)	210(58.5)	198(70.8)	55(50.9)	550(61.7)	81(55.8)	205(57.1)	186(66.5)	51(47.2)	523(58.7)
무응답	9(6.2)	13(3.6)	6(2.1)	11(10.2)	39(4.4)	9(6.2)	13(3.6)	6(2.1)	12(11.1)	40(4.5)
계	145	359	280	108	892	145	359	280	108	892

表 20 移秧機에 대한 認識度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미만	0.5—1.0ha	1.0—2.0ha	2.0ha이상	국졸	중졸	고졸	대졸	20대	30대	40대	5,60대	
사용해 보았다	10(1.9)	28(7.8)	25(8.9)	24(22.2)	15(8.0)	26(8.0)	39(11.8)	7(14.6)	11(9.7)	24(10.9)	38(8.9)	14(10.7)	87(9.7)
작업광경을 보았다	84(57.9)	224(62.4)	178(63.6)	48(44.4)	113(60.1)	188(57.9)	202(61.0)	31(64.6)	75(65.8)	132(59.7)	255(59.9)	72(55.0)	534(59.9)
기계를 못 보았다	31(21.4)	59(16.4)	50(17.9)	10(9.3)	34(18.1)	57(17.5)	55(16.6)	4(8.3)	16(14.0)	33(14.9)	75(17.6)	26(19.8)	150(16.8)
어떤 기계인지 모른다	20(13.8)	48(13.4)	27(9.6)	26(24.1)	26(13.8)	54(16.6)	35(10.6)	6(12.5)	12(10.5)	32(14.5)	58(13.6)	19(14.5)	121(13.6)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892

은 모내기 때 9.1%, 벼베기 때 12.0%에 불과했으며, 78년과 비슷했다가 24.9%와 24.8%였다.

78년보다 일손 구하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모내기 철에 61.7%, 벼베기 철에 58.7%로 노동력 부족은 78년에 비하여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78년은 봄 가뭄으로 일시에 모내기를 하였으며, 79년은 순조로운 강수로 移秧作業期間이 훨씬 길었는데도 노동력 형편이 78년 移秧期에 비하여 더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이 61.7%나 되어 78년과 같은 作業期間이었다면 일손 구하기는 보다 힘들었을 것이다.

耕作規模別로 보면 耕作面積이 제일 많은 2ha 이상의 大農層에서 農繁期 勞動力 形편이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이 제일 많이 늘었으며, 나빠졌다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러한 結果는 78년과 비교한 勞動力 形편으

로 78년에 자기의 移秧과 收穫을 각자 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農機械가 大農層에 많이 普及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내기철의 勞動力 形편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大農이 16.7%, 小農 10.0%였고, 零細農과 中農이 6.2%와 6.4%로 비슷했다. 나빠졌다는 비율은 中農이 70.8%, 零細農 60.0%, 小農 58.5%, 大農 50.9%의 순이었다.

벼베기 철의 勞動力 形편은 좋아졌다가 大農 19.5%, 小農 13.9%, 零細農 9.7%, 中農 8.2%였다. 나빠졌다는 비율은 中農 66.5%, 小農 57.1%, 零細農 55.8%, 大農 47.2%였다.

2. 農機械에 대한 認識度

調査對象으로 한 移秧機, 콤바인, 바인더에 관하여 應答者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나를 耕作規模別, 學歷別, 年齡別로 調査하였다.

가. 移秧機에 대한 認識度

表 21 바인더에 대한 認識度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졸	중졸	고졸	대졸	20대	30대	40대	5,60대	
사용해 보았다	16 (11.1)	55 (15.3)	65 (23.2)	30 (27.8)	19 (10.1)	60 (18.5)	78 (23.6)	9 (18.8)	22 (19.3)	51 (23.1)	79 (18.5)	14 (10.7)	166 (18.6)
작업광경을 보았다	77 (53.1)	188 (52.4)	143 (51.1)	40 (37.0)	108 (57.5)	155 (47.7)	160 (48.3)	25 (52.0)	67 (58.8)	103 (46.6)	215 (50.5)	63 (48.1)	448 (50.2)
기계를 못 보았다	26 (17.9)	65 (18.1)	42 (15.0)	10 (9.3)	36 (19.2)	55 (16.9)	47 (14.2)	5 (10.4)	11 (9.7)	29 (13.1)	70 (16.4)	33 (25.2)	143 (16.0)
어떤 기계인지 모른다	26 (17.9)	51 (14.2)	30 (10.7)	28 (25.9)	25 (13.3)	55 (16.9)	46 (13.9)	9 (18.8)	14 (12.3)	38 (17.2)	62 (14.6)	21 (16.0)	135 (15.1)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892

表 22 콤바인에 대한 認識度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졸	중졸	고졸	대졸	20대	30대	40대	5,60대	
사용해 보았다	4 (2.8)	21 (5.9)	18 (6.4)	12 (11.1)	7 (3.7)	22 (6.8)	20 (6.0)	6 (12.5)	5 (4.4)	12 (5.4)	29 (6.8)	9 (6.9)	55 (6.1)
작업광경을 보았다	62 (42.8)	166 (46.2)	146 (52.1)	44 (40.1)	81 (43.1)	137 (42.2)	174 (52.6)	26 (54.2)	62 (54.4)	98 (44.3)	206 (48.4)	52 (39.7)	418 (46.9)
기계를 못 보았다	48 (33.1)	107 (29.8)	82 (29.3)	22 (20.4)	64 (34.0)	100 (30.8)	88 (26.6)	7 (14.6)	27 (23.7)	65 (29.4)	125 (29.3)	42 (32.1)	259 (29.0)
어떤 기계인지 모른다	51 (35.2)	65 (18.1)	34 (12.1)	30 (27.8)	36 (19.2)	66 (20.3)	49 (14.8)	9 (18.8)	20 (17.5)	46 (20.8)	66 (15.5)	28 (21.4)	160 (18.0)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892

移秧機를 사용해 보았다고 답한 사람은 9.7%였다. 移秧機를 購入하여 직접 育苗과 移秧을 하고 있는 사람과 育苗만 직접하고 이것을 賃貸하여 移秧하는 사람 및 育苗과 移秧을 代行業者에게 맡겨서 하는 사람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었다. 移秧機를 사용해 본 사람을 耕作規模別로 보면 耕作面積이 많을수록 사용해 본 사람의 비율이 높아 大農은 22.2%, 中農 8.9%, 小農 7.8%, 零細農 6.9%였다. 또한 學歷이 높을수록 써 본 사람이 많아 大卒이 14.6%, 高卒 11.8%, 中卒과 國卒이 8.0%였다. 年齡別로는 30대가 10.9%, 50~60대가 10.7%로 비슷했으며, 20대 9.7%, 40대 8.9%였다.

移秧機로 移秧하는 作業광경을 구경하였다고 답한 사람은 59.9%였으며, 機械를 보지 못했으나 어떤 機械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30.4%나 되었다(表 20).

나. 收穫機(바인더, 콤바인)에 대한 認識度  
바인더를 사용해 본 사람은 18.6%, 콤바인을 사용해 본 사람은 6.1%였으나, 직접 機械를 구입하여 사용해 본 사람보다는 위탁하여 사용한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收穫機를 사용해 본 사람을 耕作規模別로 보면 바인더와 콤바인이 다 耕作面積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써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인더는 大農 27.8%, 中農 23.2%, 小農 15.3%, 零細農 11.1%이었다. 콤바인은 大農 11.1%, 中農 6.4%, 小農 5.9%, 零細農 2.8%였다.

學歷別로 機械를 사용해 본 사람의 비율은 바인더는 高卒 23.6%, 大卒 18.8%, 中卒 18.5%, 國卒 10.1%였으며, 콤바인은 大卒 12.5%, 高卒 6.0%, 中卒 6.8%, 國卒 3.7%였다.

바인더와 콤바인이 다같이 收穫을 목적으로 하는 作業上的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두 기계를

表 23 農機械普及에 의한 勞動力 解決可能性 認識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번				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 상	국 중	중 중	고 중	대 중	20 대	30 대	40 대	5,60대	
해 결 가 능	58 (40.0)	155 (43.2)	121 (43.2)	47 (43.5)	81 (43.1)	147 (45.2)	132 (39.9)	21 (43.8)	42 (36.8)	92 (41.6)	190 (44.6)	57 (43.5)	381 (42.7)
해 결불가 능	53 (36.6)	126 (35.1)	119 (42.5)	47 (43.5)	70 (37.2)	112 (34.5)	143 (43.2)	20 (41.7)	41 (36.0)	97 (43.9)	164 (38.5)	43 (32.8)	345 (38.7)
기 계보 급부진	27 (18.6)	63 (17.5)	31 (11.1)	4 (3.7)	28 (14.9)	48 (14.8)	44 (13.2)	5 (10.4)	24 (21.1)	20 (9.0)	57 (13.4)	24 (18.3)	125 (14.0)
모 르 겠 다	7 (4.8)	15 (1.7)	9 (3.2)	10 (9.3)	9 (4.8)	18 (5.5)	12 (3.7)	2 (4.1)	7 (6.1)	12 (5.5)	15 (3.5)	7 (5.3)	41 (4.6)
계	145	359	280	108	188	325	331	48	114	221	426	131	892

表 24 農機械 普及上的 沮害要因

단위 : 인 (%)

구 분	공급량	기계값	경지면적	농 지 기 반 미 흡			기계사용	무응답	계		
	부 족	고 가	협 소	경지정리	농 로	토 질	수리시설 소			인력부족	
이 양 기	50 (5.6)	210 (23.5)	125 (14.0)	329 (36.9)	15 (1.7)	7 (0.8)	20 (2.2)	371 (46.6)	9 (1.0)	127 (14.3)	892 (100.0)
바 인 더	40 (4.5)	283 (31.7)	165 (18.5)	177 (19.8)	29 (3.3)	5 (0.6)	15 (1.7)	226 (25.4)	11 (1.2)	167 (18.7)	892 (100.0)
콤 바 인	23 (2.6)	284 (31.8)	156 (17.5)	209 (23.4)	40 (4.5)	6 (0.7)	8 (0.9)	271 (29.5)	8 (0.9)	158 (17.7)	892 (100.0)

사용해 본 사람의 비율을 합하여 보면, 大추가 31.3%, 高추 29.6%, 中추 25.3%, 國추 13.8%로 移秧機의 경우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사용해 본 사람이 많았다<表 21, 表 22>.

3. 農機械 普及과 勞動力 解決可能性

農機械가 普及되면 점점 심각하여 지고 있는 農繁期의 勞動力 不足이 解決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應答結果이다.

農機械만 충분히 供給되면 勞動力 問題는 解決될 것이라고 應答한 사람의 비율은 42.7%였고, 農機械가 아무리 供給되어도 解決될 수 없다고 應答한 사람이 38.7%였으며, 農機械 普及이 不進하여 별로 效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4.0%였다<表 23>.

4. 農機械 普及의 沮害要因

應答者가 居住하고 있는 地域의 耕地條件이나 현재까지 普及되어 있는 農機械의 臺數가 파악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機械가 충분히 普及된 地域은 아직 없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居住地域에 農機械 普及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原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應答結果이다.

無應答者(모르겠다 포함)가 많은 것은 農機械의 認識度에서 본 바와 같이 30~40%의 應答者가 機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應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移秧機 普及의 沮害要因은 農地基盤이 機械使用에 不適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아 41.6%이며, 특히 農地基盤 중 耕地整理가 안되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36.9%나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로 農機械값이 비싸기 때문이 23.5%, 戶當耕地面積이 적다는 이유가 14.0%였다.

바인더와 콤바인은 機械값이 비싸다는 이유가 첫째로 31.7%와 31.8%의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農地條件이 안좋다가 바인더 25.4

表 25 移秧機를 購入하지 않는 理由

단위 : 인 (%)

구분	경작규모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만	0.5— 1.0ha	1.0— 2.0ha	2.0ha 이상	국졸	중졸	고졸	대졸	20대	30대	40대	5,60대	
필요함	19 (15.3)	71 (24.1)	86 (37.7)	11 (18.0)	38 (25.2)	68 (26.9)	67 (25.1)	14 (37.8)	21 (22.6)	34 (19.7)	97 (28.7)	35 (33.7)	187 (26.4)
자금사정	19 (15.3)	58 (19.7)	71 (31.1)	9 (14.8)	31 (20.5)	57 (22.5)	58 (21.7)	11 (29.7)	21 (22.6)	28 (16.2)	88 (26.0)	20 (19.2)	157 (22.2)
기술인력	—	13 (4.4)	15 (6.6)	2 (3.2)	7 (4.6)	11 (4.4)	9 (3.4)	3 (8.1)	—	6 (3.5)	9 (2.7)	15 (14.4)	30 (4.2)
필요없음	105 (84.7)	224 (75.9)	142 (62.3)	50 (82.0)	113 (74.8)	185 (73.1)	200 (74.9)	23 (62.2)	72 (77.4)	139 (80.3)	241 (71.3)	69 (66.4)	521 (73.6)
경지규모	69 (55.7)	108 (36.6)	47 (20.6)	11 (18.0)	64 (42.4)	76 (30.0)	81 (30.3)	14 (37.9)	27 (29.0)	69 (39.9)	106 (31.4)	33 (31.7)	235 (33.2)
농지조건	36 (29.0)	116 (39.3)	95 (41.7)	39 (64.0)	49 (32.4)	109 (43.1)	119 (44.6)	9 (24.3)	45 (48.4)	70 (40.4)	135 (39.9)	36 (34.6)	286 (40.4)
계	124	295	228	61	151	253	267	37	93	173	338	104	708

기구입자, 구입예정자, 무응답자는 제외한 구성비임.

%, 콤바인 29.5%이고, 그 가운데 耕地整理를 이유로 든 사람은 바인더 19.8%, 콤바인 23.4%였다.

다음은 戶當耕地面積의 협소라는 이유로 바인더 18.5%, 콤바인 17.5%였다.

### 5. 農機械 購入意思

農繁期の 勞動力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移秧機와 收穫機(바인더, 콤바인)의 필요여부, 필요하다면 왜 못사고 있는가, 필요없다면 왜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移秧機에 대하여는 無應答者와 이미 購入하여 쓰고 있는 사람, 購入하려고 하는 사람, 184명을 제외하고 708명, 收穫機는 202명을 제외한 690명을 階層別로 區分 分析하였다.

#### 가. 移秧機

移秧機가 필요하다고 應答한 사람은 26.4%였다. 필요하나 못사는 이유는 資金事情이 22.2%, 機械를 부릴 사람이 없어서가 4.2%였다. 移秧機가 필요없다고 答한 사람은 耕地規模가 협소하여가 33.2%, 農地의 條件(耕地整理 등)이 좋지 않다가 40.4%로 필요없다고 答한 사람은 모

두 73.6%였다.

移秧機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耕作規模別로 보면 中農이 가장 높아 37.7%이고, 다음이 小農으로 24.1%였으며, 大農은 18.0%밖에 되지 않았다. 零細農은 모두 84.7%가 移秧機가 필요없다고 應答했는데, 그 이유는 耕地規模가 적어서가 55.7%, 農地條件 不良이 29.0%였다.

學歷別로는 필요하다고 答한 사람의 비율이 大卒 37.8%, 中卒 26.9%, 國卒 25.2%, 高卒 25.1%였다.

年齡別로는 필요로 하는 비율이 50~60代는 33.7%, 40代 28.7%, 20代 22.6%, 30代 19.7%였다. 못사는 이유로 機械를 使用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50~60代에서 14.4%나 되었다<表25>.

#### 나. 收穫機(바인더와 콤바인)

收穫機가 필요하다고 答한 사람은 移秧機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로 27.5%였으며, 못사는 이유로는 資金事情이 23.3%, 부릴 사람이 없다가 4.2%였다. 필요없다는 사람은 전체 應答者의 72.5%였는데, 그 이유는 耕地規模의 협소가 39.4%, 農地條件 때문이 33.1%로 移秧機의 경

表 26 收穫機(콤바인, 바인더)를 購入하지 않는 理由

단위 : 인 (%)

구 분	경 작 규 모 별				학 력 별				연 령 층 별				계
	0.5ha 미 만	0.5—1.0ha	1.0—2.0ha	2.0ha 이상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20 대	30 대	40 대	5,60대	
필요함	24 (19.7)	77 (27.0)	70 (33.3)	19 (26.0)	35 (23.6)	71 (29.3)	71 (26.9)	13 (36.1)	21 (22.1)	38 (22.3)	103 (31.5)	28 (28.6)	190 (27.5)
자 금	24 (19.7)	61 (21.4)	59 (28.1)	17 (23.3)	27 (18.2)	62 (25.6)	62 (23.5)	10 (27.8)	21 (22.1)	32 (18.8)	94 (28.8)	14 (14.3)	161 (23.3)
기술인력	—	16 (5.6)	11 (5.2)	2 (2.7)	8 (5.4)	9 (3.7)	9 (3.4)	3 (8.3)	—	6 (3.5)	9 (2.7)	14 (14.3)	29 (4.2)
필요없음	98 (80.3)	208 (73.0)	140 (66.7)	54 (74.0)	113 (76.4)	171 (70.7)	193 (73.1)	23 (63.9)	74 (77.9)	132 (77.7)	224 (68.5)	70 (71.4)	500 (72.5)
경지규모	73 (59.8)	117 (41.1)	71 (33.8)	11 (15.1)	72 (48.7)	89 (36.8)	97 (36.7)	14 (38.9)	45 (47.4)	76 (44.7)	112 (34.3)	39 (39.8)	272 (39.4)
농지조건	25 (20.5)	91 (31.9)	69 (32.9)	43 (58.9)	41 (27.7)	82 (33.9)	96 (36.4)	9 (25.0)	29 (30.5)	56 (33.0)	112 (34.3)	31 (31.6)	228 (33.1)
계	122	285	210	73	148	242	264	36	95	170	327	98	690

기구입자, 구입예정자, 무응답자는 제외한 구성비임.

우와는 반대로 耕地面積 협소가 더 높은 比率이 었다.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耕作規模別로 구분하여 보면 移秧機의 경우와 같은 순으로 中農 33.3%, 小農 27.0%, 大農 26.0%, 零細農 19.7%의 비율이었다. 大農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面積 區分이 所有面積이 아닌 耕作面積이라는 점과 논과 밭의 구분이 안된 面積으로 논에만 필요로 하는 機種에 대한 調査이며, 또한 大農은 현재의 經營條件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機械普及率이 높을 것 등의 이유에서 생긴 結果라고 생각된다.

學歷別로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移秧機와 대체로 같은 경향으로 大卒 36.1%, 中卒 29.3%, 高卒 26.9%, 國卒 23.6%였다.

年齡別로는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40代 31.5%, 50~60代 28.6%, 30代 22.3%, 20代 22.1%였다. 필요하나 못사는 이유 중 부릴 사람이 없다는 사람은 50~60代에서 14.3%로 移秧機와 같은 비율이었다. 필요없다는 이유 중 耕地規模의 협소를 이유로 답한 사람은 零細農은 59.8%나 되고, 小農 41.1%, 中農 33.8%, 大農

15.1%였으며, 農地條件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 大農이 58.9%, 中農 32.9%, 小農 31.9%, 零細農 20.5%였다<表 26>.

#### IV. 맺는 말

##### 1. 農民의 意識變化

農民의 意識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78年과 79年の 단 1年間의 時差를 두고 調査한 結果이지만 지난 1年間 農民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살았느냐를 알 수 있다.

<表 27>은 78年과 79年の 調査에서 內容이 같은 設問의 農業 및 農村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에 응답한 비율만을 비교한 것이다.

表 27 農民満足度의 年度間 比較 단위 : %

구 분	78년 응답비율	79년 응답비율	비율 증감
5년전에 비하여 농촌생활 향상	95.9	89.4	△6.5
영농 종사에 만족	49.9	30.5	△19.4
도시보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전망	18.3	4.5	△13.8
농촌에 계속 정착의사	70.6	66.3	△4.3
자녀에게 농업권장	6.3	3.8	△2.5

5年前에 비하여 農村生活이 향상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95.9%에서 89.4%로 떨어졌으며, 현

재 營農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49.5%에서 30.5%로 무려 19.4%나 낮아졌다. 앞으로 農村生活環境이 都市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18.3%에서 4.5%로 크게 減少하였다.

農村에서 계속 살겠다고 답한 사람은 70.6%에서 66.3%로 낮아져서 農村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半을 넘지만, 대부분 살고 싶다가 아니고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다음 設問의 子女에게 農業을 勸獎하겠다는 비율이 78年 6.3%에서 3.8%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2. 勞動力減少와 農機械 普及展望

農繁期의 일손 구하기가 78년에 비하여 어려워졌다고 답한 사람이 모내기 철에 61.7%, 벼베기 철에 58.7%나 되었다.

勞動力 不足의 解決方案으로 農機械의 普及이 推進되고 있는데, 農機械가 충분히 普及되면 그 解決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2.7%이었다. 農機械가 普及되어도 解決되지 않을 것이다와 機械普及 자체가 不振하여 勞動力 不足現象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2.7%였다.

移秧機를 사용해 본 사람은 9.7%였으며, 그 중 바인더 18.6%, 콤바인 6.1%였다. 작업광경을 보고 機械의 性能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移秧機 59.9%, 바인더 50.2%, 콤바인 46.9%였다.

農機械 普及上的 沮害要因으로는 機械값이 비싸다, 農地基盤造成이 잘되지 않았다, 耕地規模가 협소하다 등이 主要 要因이었다.

이상의 分析結果에서 農業과 農村生活의 밝은 면이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두운 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